

고전 산문

이춘풍전_작자미상	002
김현감호_작자미상	008
만복사저포기_김시습	012
옥루몽_남영로	020
숙향전_작자미상	028
창선감의록_작자미상	038
전우치전_작자미상	040
공쥐팔쥐전_작자미상	050
주생전_권필	052
최척전_작자미상	054
임진록_작자미상	058
육미당기_서유영	062
예덕선생전_박지원	066
금방울전_작자미상	068
봉산탈춤_작자미상	072

현대 산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_성석제	078
고향_이기영	080
미스터 방_채만식	082
모래톱 이야기_김정한	084
동행_전상국	088
아우를 위하여_황석영	090
완장_윤흥길	092
만무방_김유정	094
호신술_송영	096
소_유치진	098
결혼_이강백	106

[고전 산문 출처 및 정답] 110

[현대 산문 출처 및 정답] 116

작자 미상, 「이춘풍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이춘풍은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다 털리고 추월의 집 하인이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처는 남장을 하고 신임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간다. 평양에서 춘풍의 처는 추월을 문초하여 춘풍의 돈을 돌려주도록 한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린다.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갔, 망건, 의복 치레 하여 은안준마(銀鞍駿馬)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아리 돈을 여기저기 벌여 놓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례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만한 태도 지어내어 제 아내 꾸짖으며,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 [A] 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도 그릇 박고 고기도 씹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내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다 셈하고 약간 전량 소쇄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 하고 담뱃대를 한 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 왔느냐.”

춘풍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벼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하여 여쭙오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댁 문하에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오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여이다.”

… (중략) …

춘풍이 어찌지 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 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춘풍이 왈,

“나오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그 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때는 상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비장이 왈,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드리거늘,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내외시키느냐. 네 계집 빨리 불러 술 준비 못 시킬소냐.”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들며 나며 찾아도 없어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제 형용도 참혹하고 거지 [B]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 누더기 감발 버선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막을손가. 좌불안석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왈,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가 술이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해갈(解渴)이나 하게 갈분(葛粉)이나 한 그릇 하여 오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오. 주적주적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

“뭇쓸 놈이로다.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내가 집에 왔고 그리 체중한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나가서 죽 쑤는 꼴은 차마 우습더라. 한참 항적여서 쑤어드리거늘, 비장이 조금 먹은 채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한 사발에 누룽밥 토장덩이에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왈,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과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은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 탕건 벗어 옷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연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며 자세히 보니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어 묵묵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으며,

“이 사람, 인제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러한가.”

하며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 미상, 「 이춘풍전 」 -

* 봉두난발 : 머리털이 쑥대강이같이 험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 깨어진 거울이 서로 맞대어 붙어.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순종적인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경제 활동을 소홀히 여겼던 당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탐관오리(貪官汚吏)가 판치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 ④ 가부장적인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지닌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⑤ 사회적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몰락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건]	[내용]
사건 I	춘풍이 귀가하여 춘풍의 처에게 호기를 부림.
↓	
사건 II	비장이 춘풍을 찾아와 대화를 나눔.
↓	
사건 III	춘풍과 춘풍의 처가 대화를 나눔.

- ① ‘사건 I’에서 보인 춘풍의 태도가 ‘사건 II’를 야기하고 있군.
- ② ‘사건 II’에서 비장은 춘풍의 과거 행적을 춘풍의 처에게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사건 III’에서는 춘풍의 처가 꾸민 일이 종결되고 있군.
- ④ ‘사건 III’에서 춘풍은 춘풍의 처에게 ‘사건 I’에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군.
- ⑤ ‘사건 I → 사건 II’, ‘사건 II → 사건 III’으로 바뀔 때 ‘복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

3. ㉠ ㉡, 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①	불만을 드러낸 것	상대의 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
②	불안감이 표출된 것	만족감이 표출된 것
③	당혹감을 표출한 것	감정을 상반되게 표현한 것
④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	기대가 충족되어 나타난 것
⑤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

4. [B]를 고려할 때, [A]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를 한자 성어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호가호위(狐假虎威)
- ② 정저지와(井底之蛙)
-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다음날 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민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넰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력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 백 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럴 다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며 군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고 온 사람도 및 없더마. 소리마 및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퀘이맨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영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쌍노. ㉤도시에서 쫓딱 망해가고 귀농을 했시모 앞잡한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대를 가든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유복자로 여덟 달 만에 태어난 황만근은 지능이 모자라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을에서 반편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아왔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벅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 행동지침이라. 그래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랄. 그런께 민씨는 농사짓는 기 아이라. 비니루하우스 안에 꽃 밭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 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든동 버스를 타고 가든동 하고, 그 답에는 경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까잇거.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이면서 왜 자꾸 농민 궐기대회에 나갈라꼬 캐싸.”

“아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라마 우리를 다 합치기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용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러 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 민소 : 면소, 면사무소의 사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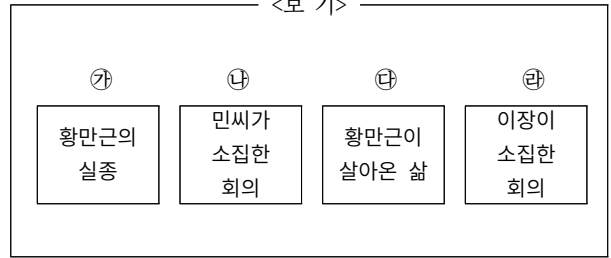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섬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② ㉡ :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③ ㉢ :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 ④ ㉣ :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 ⑤ ㉣ : ‘이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3. 위 글의 내용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간상으로 ㉢과 ㉣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와 ㉣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 ③ ㉡와 ㉣를 통해 ㉠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④ ㉡에 요약된 내용이 ㉢와 ㉣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를 개최한 이유는 ㉡에서 해결 못 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운기를 타고 농민궐기대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결국 경운기 사고로 죽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민씨는 궐기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된다 카이.」 / “기계화영농 카더 이 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지빠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 없다.” /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 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덩구리로 만든다.” ……」

농민으로서 진솔한 삶을 살아 온 황만근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①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원칙을 지키다 죽은 황만근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④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 ⑤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기출문제			
작품명	문제 출처	문제	정답
작자 미상, 「이춘풍전」	1학년_2011학년도 6월 20,21,22,23	1	④
		2	②
		3	⑤
		4	⑤
	3학년_2013학년도 3월 B형 34,35,36	5	③
		6	①
		7	⑤
	3학년_2015학년도 7월 A형 39,40,41,42	8	⑤
		9	①
		10	③
		11	⑤
작자 미상, 「김현감호」	3학년_2017학년도 9월 40,41,42,43,44,45 [평가원]	12	⑤
		13	⑤
		14	①
		15	①
		16	④
		17	①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3학년_2010학년도 수능 16,17,18,19 [평가원]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학년_2006학년도 9월 28,29,30,31,32	22	④
		23	①
		24	③
		25	①
	2학년_2007학년도 6월 33,34,35,36	26	③
		27	①
		28	②
		29	④
	3학년_2016학년도 10월 40,41,42	30	②
		31	③
32		②	
33		①	
남영로, 「옥루몽」	3학년_2010학년도 9월 27,28,29,30 [평가원]	34	①
		35	②
		36	③
		37	①
	3학년_2014학년도 수능 B형 31,32,33,34 [평가원]	38	③
		39	③
		40	①
		41	⑤
	3학년_2007학년도 10월 21,22,23,24	42	③
		43	③
		44	③
45		④	
3학년_2018학년도 3월 25,26,27	46	①	
	47	⑤	
	48	⑤	
3학년_2007학년도 9월 44,45,46,47,48 [평가원]	49	③	
	50	⑤	
	51	③	

기출문제			
작품명	문제 출처	문제 번호	정답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3학년_2010학년도 3월 40,41,42,43	1	③
		2	⑤
		3	③
		4	⑤
이기영, 「고향」	1학년_2013학년도 9월 38,39,40	5	④
		6	④
		7	②
채만식, 「미스터 방」	3학년_2014학년도 6월 34,35,36,37 [평가원]	8	③
		9	③
		10	②
		11	①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3학년_2015학년도 6월 34,35,36,37,38 [평가원]	12	④
		13	②
		14	④
		15	③
	2학년_2014학년도 6월 34,35,36	16	①
		17	③
		18	②
		19	④
전상국, 「동행」	2학년_2018학년도 6월 34,35,36,37	20	③
		21	②
		22	②
		23	④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1학년_2015학년도 6월 40,41,42,43	24	②
		25	④
		26	③
		27	③
윤홍길, 「완장」	3학년_2013학년도 10월 A 37,38,39,40	28	②
		29	⑤
		30	④
		31	①
김유정, 「만무방」	3학년_2007학년도 수능 15,16,17,18,19 [평가원]	32	①
		33	②
		34	②
		35	④
송영, 「호신술」	2학년_2016학년도 11월 44,45	36	④
		37	④
		38	③